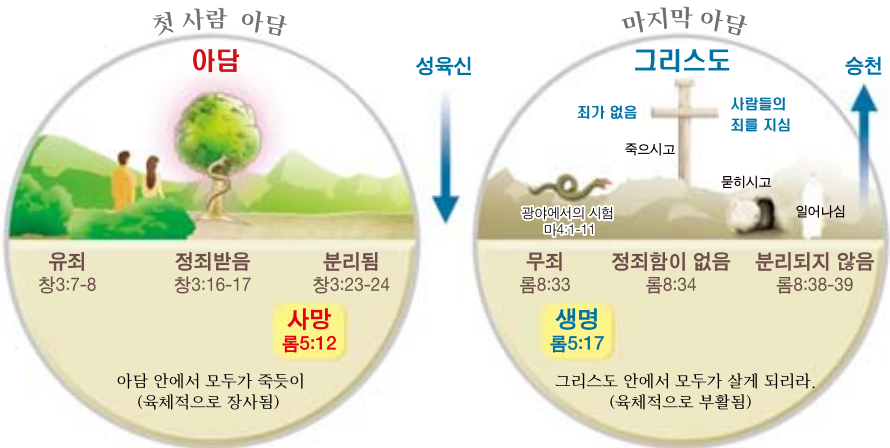


두 아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창5: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마1:1).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15:45).

성경은 두 명의 상징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라 불리며 두 번째 인물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혹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고전 15:47) 등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첫째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책임을 지고 있다(롬5:12).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이 행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즉,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왔다(롬5:17; 히9:26). 구약성경은 첫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창5:1-27). 구약성경에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느헤미야 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들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도시를 소망하면서 결국 죽었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의 모든 세대들이 죽는다는 것이 구약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핵심이다. 반면에 신약성경은 사람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분, 영원한 도시를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맞으러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세대 뿐이 없다(시22:30; 사53:8; 벰전2:9). 그분 안에는 단 한 세대뿐이 없으므로 그분에게서 난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모두 형제/자매이다. 마귀는 세상의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인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요일2:16)으로 첫 아담을 좌절시키고 죄를 이 땅에 가져왔으나(창3:5-6)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마4:1-11)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남으로써 마귀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수했다(히2:9-18).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육체로 부활한 것 같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 것이다(고전15:51-57; 살전4:13-17).